

## 제 7 장 매개의 언어

### ◆ 2교시 모든 것 안의 언어

#### ▲ 인간 문화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추상적 작용 - 그노시스와 소마

은유의 문제, 은유라고 하는 것도 수사를 얘기할 때 환유와 함께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은유와 환유. 은유는 수사학의 꽃이라고 불려요. 가장 먼저 정리가 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은유라고 하는 것을 비유법의 대표적으로 말했죠.

같은 비슷한 똑같은 특징을 매개로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언어학 내부 이론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언어적 매커니즘 안에서도 그래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두개의 대상 안에는 형상, 질료라는 말, 그 말도 철학에서 방대하게 쓰였던 분야여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환원주의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녹아 있잖아요.

하나를 얘기해서 그 개념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환원주의적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만큼 형상과 질료라는 개념이 광범위한 뜻으로 쓰인다는 의미죠.

정확한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개의 구성체가 있잖아요. 두개의 단어가 있다는 것, 그 안에는 다양한 변별체들이 녹아 있잖아요.

책상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책상은 개념적 구성체죠. 책상이라고 하면 책상들, 책상들은 복수의 접미어니까 뻗 수 있고, 책상이라는 것을 책과 상을 나눌 수 없어요. 책이라는 말과 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지만 나누어서 이건 책이고, 저건 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단일한 개념 구성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 다양한 변별체가 녹아들어있어요.

평평하다는 말, 평평해야 책상이죠. 마찬가지로 단단해야죠. 평평한데 말랑말랑하면 책상이 안 되잖아요. 편평하고 단단한 바닥도 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되죠.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죠. 이동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움직일 수 있어야한다는 다양한 특징이 녹아 있을 때 책상이란 개념이 형성된다는 거죠.

단어 안에는 구성체라고 하는 것과 아이덴티티라는 변별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죠. 아까 썼던 두 개의 축, 퀄리티의 축, 퀀티티의 축이 같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어증의 예를 들면, 실어증의 환자들의 경우 구성이 안 되는 환자가 있어요. 책상이라는 개념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책하고 상하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되지요. 개념자체는 책이라는 말과 상이라는 말이 붙어서 생긴 말이지만 대상을 놓고서

책이라는 말과 상이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책과 상하면, 상 위에다 책을 올려놓으면 책과 상이 되지만 ‘책상’하고 다른 말이죠. 그런 관계를 제대로 제어를 못하는 거죠. 구성을 못하는 브로커 환자의 경우, 반면 다른 구별을 못하는 경우 책상과 밥상을 구별을 못하는데, 물론 지각적 차원에서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구별을 못하는 거죠. 혹은 개별 이전에 단어의 차원에서 구별을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차원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만 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뇌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가 녹아서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브로카의 측, 베르니카의 측과 퀴티티의 측과 퀄러티의 측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런 얘이에요.

그 두 가지의 개념, 구성된 개념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책상과 밥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책상 밥상은 너무나 비슷한 옆에 있는 개념인데.

한참 떨어져있을 것 같은데 뭔가 유사한 개념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게 마치 다른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문화에는 그노시스의 추상작용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노시스의 추상작용이 언어죠? 소마의 추상작용이라는 것, 그게 사회죠.

#### ▲ 욕망의 추상작용 -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추상작용도 있다는 거죠. 욕망의 추상작용도 있어요. 지각과 다른 개념 활동을 가지고 있듯이 욕망과 다른 제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물적 의미에서의 욕망과 다른, 다른 의미에서의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뭔가를 일할 때 도구를 쓰죠. 도구인간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도구하고는 다른 테크닉이 있죠. 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테크닉도 인문학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직은 연구가 되지 않는 분야인데, 테크닉도 자연 과학적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근거에서 테크닉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유희의 인간이라는 것도 거기에 근거해서 볼 수 있죠.

유희, 논다는 것, 왜 놀죠? 일하다의 반대인데 인간은 일하는 인간인데 동물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동물도 일하긴 해요. 동물은 유희가 없어요. 물론 동물이 장난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동물에게도 개념단계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오류라는 건데, 비슷한 것을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되죠. 분석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게 있죠.

### ▲ 주체, 객체, 구체(具體)

그런 차원에서도 도구의 차원에서도 연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대상이면 상관없는데, 대상이 달라요. 언어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 대상이라는 말을 쓰면 헷갈릴 수 있는데, 개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오브젝트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대상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서브젝트'라는 말로도 구별했죠. 전통적으로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사이의 관계를 언어과정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죠.

인간과 오브젝트의 관계이고, 인간과 오브젝트의 관계를 하는 것이 인지를 다루는 과정이라는 거고.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서브젝트와 서브젝트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 인간과 서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인간과 서브젝트의 관계.

내가 있는데, 나와 주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와 객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는 것이 인지를 다루는 학문이라면, 나와 주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따지는 것이 존재의 학문이라는 거죠.

두개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혼동하고 혹은 하나의 것을 묶기 때문에 환원주의가 나오는 거죠. 무리한 소화불량이 나온다는 거죠. 기존의 철학이 범한 오류들이 소화불량이에요. 진단을 내리자면.

그런 것처럼, 오브젝트와 서브젝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트라젝트traject를 써야 되는데,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지만,

대상이라고 쓰고 주체, 객체 이런 말을 쓰는데. 오브젝트를 객체라고 썼고, 서브젝트를 주체라고 썼다면, 신조어에 대한 부담감만 이해를 해준다면, '구체(具體)'라고 '도구'라는 의미로, 그런 용어를 제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런 용어가 한국말에, 학문세계 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 다루고 있는 모든 인식하는 것들, 그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들, 존재의 양상도 아니고, 인간이 다루는 도구로서의 개체들을 인식하는 거죠. 사실 인식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죠. 도구로써 가진다는 거죠.

책상이라는 것이 인식의 차원으로 다뤄질 수 있고 도구의 차원으로 다뤄질 수 있죠. 그 차원예요. 인간이 객체로서 다뤄질 수 있고, 주체로 다뤄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거죠. 주체로서 인간과 객체로서의 인간은 다르죠. 상대방을 주체로 인정하느냐 객체로 인정하느냐. 책상을 객체로서 인정 하느냐 구체로서 인정하느냐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은유라는 표현을 말했죠. 얼마든지 두 구체들 사이에서 서로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런 건데, 책상을 가지고 책을 올려놓고 글도 쓰는데, 인간의 문화가 구체 안에서 은유 같은 역할, 즉 똑같은 주 상위개념을 가지고 좀 다르더라도 다른 데로 전이되듯이 똑같은 거죠.

책상에서의 주 특징은 단단하고 편평해야하죠. 갈색일 필요는 없어요. 이 안에 책상도 흰색도 갈색이 있죠. 황토색, 굳이 책상이 황토색이 필요는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흰색이 아니어도 상관 없어요.

책상이 변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책상이 망가졌다든가 못 쓰는 상황이 오면 다른 책상을 쓸 수 있죠. 황토색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책상에서, 미적 가치는 있지만 본질적 책상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책상에서 중요한 것은 높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책상으로서 글을 써야 되는 목적이라면 평평하고 단단하면 되죠. 평평하고 단단하다는 구체안에서의 특징을 통해 다른 데로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 바닥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친구 집에 덩동 놀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면, 책상이 없죠. 가방을 놓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개념단계에서의 은유의 전이와 같다는 거죠. 지금은 객체에서의 은유전이가 아니라 ‘구체’에서의 그런 거죠.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죠.

동물은 그게 안 돼요. 쥐는 비누로 이를 갈잖아요. 비누를 치워버리면 뭘로 갈아야할지 몰라요. 이가 자라기 때문에 갈잖아요. 갈던 걸 치우면 뭘로 갈아야하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있죠, 병적으로 내가 쓰는 물건을 치워버리면 못 쓰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한 결함이라고 하는 거죠.

### ▲ 전이의 위험성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다른 오브젝트로 전이되는 것, 여기서의 오브젝트는 개념화된 오브젝트인거죠. 그게 은유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구체 안에 여러 가지 변별성들이 녹아서 만들어진 것이죠. 둘 사이에 A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공통적인 B라는 것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별성. 그 변별성을 통해 전이가 된다는 거죠.

언어학적으로 그런 위험이라는 것이 뭐죠? 전이가 되었을 때는 분명 공통점인, 지금 사전으로 그려진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전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교의 대상이 돼야지 나머지 까지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짝 경계선을 넘어요. 비교를 한 다음에, 경계선 너머에 있는 A와

같이 않은 대상까지 같이 걸고 넘어지는 거죠. 청자의 입장에서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요.

A라는 대상에 있지 않은 내용까지 거기에 마치 있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서, ‘아 그렇지.’ 하죠. 더더군나 에스테틱 상으로, 미적으로 기발한 은유의 경우라면 혼동의 경우가 더 심해져요. 흔히 문학적 아름다움의 유혹에 되면 판단이 흐려져요. 서로 중복되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잘못 들어간다는 거죠.

정치인들 경우, 비유를 통해 대상을 말하면 그 대상 안에서 원래 대상이었던 다른 것들, 그것과의 전이과정, 애초에 썼던 비교의 대상으로서의 전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특징만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어떠하다고 할 때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개념을 혼동하게 되는 거죠. 결과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은유의 함정이죠.

그래서 언어분석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다른, 다른 분야로서 응용학문으로서의 은유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틀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죽 여정을 언어학과 관련된 메타적, 메타 위에 있는 학문으로서의 언어학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전개과정,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순을 보면 그대로, 실제 언어세계 안에서도 오류가 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각 학문분야에서의 오류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들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가능성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언어라는 말 안에, 그 대상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능성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메타, 다시 말해 상위의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언어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언어학적인 학문적인 모험들이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메타죠. 그대로 밑에 것도 투영될 수 있다는 거죠.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언어학과 기호학 사이에서의 충돌, 서로 중복되면 안 되는, 혼동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언어학 역사에서 봤던 것들을 다른 것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형상과 질료사이의 관계, 은유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언어학이라는 학문 하에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사실, 언어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언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언어자체의 논리로서의 언어도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화되었을 때, 언어예요

사회언어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학문분야로서의 사회언어학은 범위가 좁은 분야예요. 이미 한국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사회언어학이에요. 논리에서 벗어난 문제죠. 앞에 있는 객체들인데 객체로 인정하지 않고 주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거죠.

자와 타를 구별한다는 거죠. 나하고 같지만, 같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고, 한국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사회언어학이죠.

### ▲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말 - 트라젝트

트라젝트traject가 언어와 맞물리면, 언어를 도구로서 쓴다는 것, 도구를 가지고 언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말과 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말과 글이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대등이라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말이라는 것과 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어학에서는 쓸 수 없지만, 비유적 표현을 쓴다면 유전상으로 기원을 본다면 이미 처음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글은 없어요. 글은 인간의 문명을 놓고 보더라도 글은 언어의 탄생 한참 후의 일이죠.

인간의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은 엄청난 시대적 차이가 있어요. 한 인간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시기와 글을 배우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말이라는 것과 글이라는 것을 그대로 대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글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를 통해서 언어를 덧씌운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사회라고 하는 것과 말이라고 하는 것, soma와 gnosis가 두개가 결합이 되었을 때, 한국어를 쓴다든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와 트라젝트가 겹쳐서 생기는 대상, 인간의 문화적 산물인거죠. 펜을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뭔가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언어활동을, 어떤 다른 트라젝트를 가지고 특정목적에 의해서 목적이 있지요?

글을 왜 쓰나요.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글 자체가 언어활동이 아니예요. 다른 차원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 쓰는 거죠. 문자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화 중에서 가장 큰 발명이잖아요.

어떤 차원인가요? 트라젝트의 차원에서요. 그 이후에 문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언어를 어떤 의미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구체화가 concrete의 의미가 아니라 트라젝트의 의미로 쓰는 거죠. 어떻게 언어를 도구화시킬 수 있는가 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글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임상학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글도 임상학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요. 글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면 글에서도 오브젝트와 트라젝트가 겹쳐서 생긴 거죠. 둘 중 하나만 망가져도 글을 쓰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실어증에 걸린 사람은 글을 잘 못쓰겠죠. 논리에 문제에 있으니까.

그러나 트라젝트의 분석능력도 국지화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 어떤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들이 나와있다는 거죠. 소미soma의 능력 그 차원은 아직 뇌의 어느 부분이 관장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라젝트의 능력은 뇌의 어느 부분이 망가져서 된다는, 뇌에 국지화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글을 쓸 수 없다는 거 그런 거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논리라는 문제와 도구라는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글이라는 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어의 문제는 트라젝트의 문제와 결부돼요. 인간의 문화는 모든 것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 ▲ 인간을 설명하는 새로운 말 -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로 언어의 문제가, 프로이트 이후에 대박을 터트렸죠. 새로운 유형의 인문학, 정신분석학이라는 것. 그 전에는 심리학이란 학문만 있다가 정신분석학이 만들어졌죠. 그 전까지는 약물을 투여했는데, 요즘도 방법이 유지되고 있고, 기술도 발전되었지만, 정신분석학에서의 본질적 내용은 언어를 통해서 찾아내고 알아내는 것이잖아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 얘기죠. 말실수에서 찾아내는 그런 것들요. 라틴어의 랍시스라고 해서, 번역되기 어려운건데, 위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말, 인간은 거짓말쟁이죠.

있는 말 그대로 표현 안하죠. 어떤 형태로든 정제시켜요. 내가 있는 말 그대로 표현 안해요. 지금까지 오브젝트를 얘기했죠.

이번에는 ‘프로젝트’라고, 한국말로 ‘계체’라고, 신조어에 대한 부담감을 이해해준다면, 계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해요.

다른 오브젝트가 어떤 건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동물과 다른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되는데.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프로젝트라는 것이 특정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프로젝트잖아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뭔가를 지나서 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욕망의 문제인데, 오브젝트 1과 2를 가지고 얘기했고, 서브젝트1과 2의 관계도 얘기했는데. 프로젝트의1과 2의 관계를 말해보면, 프로젝트는 욕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감인거죠. 하고 싶다는 건 부족감인거죠. 두 욕망 사이에서 계산이 필요한데 두 욕망사

이의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되냐, 어떤 것이 크냐는 거죠.

다른 하나를 희생하고라도 다른 하나를 얻어야 한다는 계산에서 프로젝트 1에서 2로 넘어가는, 다른 차원에서 욕망 사이에서의 계산관계, 오브젝트 둘 사이의 전이관계 아니고 서브젝트 전이관계 아닌, 프로젝트 둘 사이의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식에서도 오브젝트 사이에서의 전이관계는 동물도 가지고 있었죠. 고등 동물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욕망 중에 쉬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다양해요. 수많은 욕망에서 계산관계가 어떤 게 존재하냐면, 사자가 사냥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죠. 계산의 결과에 따른 거예요.

사자도 뛰기 싫은데 먹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둘 사이에 계산을 해야죠. 먹고 싶은 욕망보다 쉬고 싶은 욕망이 더 크면 사자는 사냥하지 않아요. 빨 달린 일종의 소 종류가 아닌 염소종류, 물소 말고, 사자밥, 개가 아무리 왔다갔다해도 사냥을 안해요.

쉬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면요. 그런데 쉬고 싶은 욕망보다 먹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면 부족감이 더 크다면 사냥을 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배고픈데 가게 나가 빵을 하나 살까 싶은데, 배고픈 거 보다 귀찮으면 안 나가요. 그 둘 사이, 두 욕망사이에서 계산이 필요한 거죠. 계산을 해놓고 어느 쪽이 더 크냐를 가지고 한쪽을 희생을 하는 거죠.

경제학이라는 응용학문의 경우에서도 사회학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데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학적인 측면보다 가치, 욕망에 가까운 학문으로 볼 수 있죠. 그것이 사회화에 투여한 것이 경제학이라는 건데, 한 인간의 개인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둘 사이에서 무엇을,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죠. 작은 가치를 희생하고 큰 가치를 취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이익 부분을 이윤이라고 하죠.

희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 사이에서의 계산, 그것이 더 컸을 때 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간의 문화라는 거죠. 프로젝트 1과 2은 동물도 해요. 개의 두뇌 사자의 두뇌도 그런 분석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브젝트 둘 사이 분석능력이 동물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추상화시킨다는 것.

윤리라는 문제가 그건데, 반대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욕망이라는 것이 일차적 욕망은 동물적 욕망은 부족한 풀어야 욕망이 풀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승화된 욕망을 그렇지 않아요. 안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해야 쾌감을 느끼는데 안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승화된 욕망이라 하죠. 먹어야 쾌감인데 안 먹어야 쾌감인데 거꾸로 가는 거죠.

언어의 차원에서 실제로 지시해야 되는 대상물을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빈껍데기 만드는 것처럼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트라젝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트라젝트 차원의 여가가



그런 거예요. 안하면서 하는 거죠. 인간은 안하는 걸 찾아내요. 일은 해야잖아요. 그런데 동물도 같아요. 인간은 안하는 걸 찾아내요. 안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것.

전부 모든 문화가 변증법적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도 욕망을 있으면 풀어야하는데 참으면서 결국 다른 차원에서 승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승화된 욕망은 자연적 욕망과 근접해야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는 문화는 네 개의 단계에서 모두 다 기본적인, 지금은 언어를 주로 얘기하는 시간이어서 다른 걸 비중 있게 말할 수 없었지만, 똑같아요. 네 개의 영역이 동물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추상화 시키고 그림으로 언어의 세계 두면 두 축, 두 극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분석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브젝트와 연관이 되었을 때 구체적 언어라 했죠. 실증적인 거죠. 내가 한국말을 하는 거죠. 서브젝트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서브젝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을 상실하면 말을 할 수 없어요. 논리는 가지고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언어권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자아로서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트랙젝트, 글로 표현된다 했죠. 프로젝트와 결부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언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쓰는 언어 중 진실된 언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감추죠. 진실된 언어를 쓴다는 것은 내하고 싶은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욕망을 다 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언어를 참음으로 해서, 언어의 문제가 아니죠. 언어를 참음으로 승화적 욕망을 푼다는 거죠.

문학이라는 것이 경제학도 그랬고, 문학도 실용학문이라고 했죠. 문학이 실용학문이라고 하면 엉뚱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실용학문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해하죠.

문학이라는 실용학문에서는 논리도 있지만, 문학 안에서 중요한 게 논리지만 정말 중요한 축이 '프로젝트'라는 것.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는 것은 외설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에 문학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그런 이유죠.

거기서는 승화된 욕망의 추구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오는 대로 터지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것을 안 하면서 하는, 표현을 안 하면서 표현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승화의 결정적인 거죠.

욕망이라는 것이, 걸러진 표현하지 않으면서 결국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죠. 있는 말 다하는 게 아니죠. 표현이 되지 않았을 때 표현되는 것, 그것이 문학에서의 정화 아니겠어요.

#### ▲ 언어의 모든 것, 모든 것의 언어

언어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죠. 그것이 다 언어학이죠. 그건 아니죠. 언어 제국이나. 그건 아니죠.

이 방법으로든, 모든 것에도 언어가 있지만, 역방향으로 보더라도 언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할 수 도 있어요. 그러면 언어가 언어학인가요. 사회학인가요. 경제학인가요. 문학인가요. 논쟁들이 불필요한 논쟁들이 야기되는 이 모든 것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분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여러 대상을 걸치고 있을 수도 있고 언어라는 말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을 수 도 있죠. 어떤 의미의 언어를 쓰느냐 했을 때, 학문의 내용을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단어에 집착되어있으면 안돼요. 한 발짝 뺄 수 있어야 돼요.

이 일화와 똑같죠. 아인슈타인에게 당신에게, 엄청난 명성을 누렸던 과학자인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일단 신이 뭔지 설명해 주시요. 그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하겠다. 단어의 개념부터 설명이 되지 않고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게 분석이라는 거죠.

구성체로서 제한을 시킨다던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든가 그럼 그 안에서 얘기하자든가.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여기까지 얘기한 거냐. 변별성인거죠. 그럼 내부의 변별성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이 되지 않으며 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언어학이라는 것이 이외에도 언어학 안에서 수사학도 언어학적 분석방법으로 되었죠. 과거에서 쓴 형상질료 개념뿐만 아니라 실재론과 유명론의 대립, 중세의 큰 대립 중 하나였던, 그런 거라든가. '직접적인 소여'라는 것도 베르그송, 그런 오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언어학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큰 롤모델 역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언어학이라는 것이, 일단 인문학이 메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언어라는 것이 더 메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한다는 게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무슨 '-logy' 이런 것들이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이 메타적 성격이 가장 큰 거죠. 20세기에 언어학이 모든 학문의 파일럿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어학에서 모든 것이 끌어왔었죠. 철학마저도 그랬죠.

## ▲ 언어학의 미래

그랬을 때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엄밀한 분석 없이, 문어발처럼 제국d으로서의 언어학은 오히려 해를 끼칠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든 학문에서든 파일럿이 될 수 없다.

모든 것 안에 언어가 있고 언어 안에 모든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석틀로서 언어학이 되는 거죠. 이외에도 언어학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과학이론이라는 것도, 칼 포퍼의 이론이 언어학적 모델가지고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델로 설명했을 때 칼 포퍼의 이론 안에는 퀄리티의 측과 퀄티티의 측을 얘기했지요.

칼 포퍼의 이론 안에는,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른 기회에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두 축에서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포퍼는 퀄리티의 측면만 말한 거예요. 과학이론까지도 갈 수 있고, 신화이론도 언어이론으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인류학적인 레비스트로스가 작업했던 모든 것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요. 서브젝트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반면 그 안에 있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보면 언어학적 모델 안에 들어있는 매커니즘을 분석을 통해 신화이론 역시 또 분석할 수 있죠.

언어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고갈되지 않는 무한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알려지지 않는 분야도 많고 알려졌지만 잘못 알려진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재정립되었을 때 언어학이 다른 의미에서 파일럿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